온 신학에서 바라본

선교적 교회를 위한 통합적 관점



**강사: 한국일 교수**

  **선교학**

**장로회신학대학교**

 **\*논문: 선교적회론**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리등**

**\*역서: 선교학 사전 (공역)**

**\*저저: 선교학 개론**

**세계를 품는 교회 등**

1. **서론**
2. **통전적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온 신학의 이해와 역할**
3. **선교적 교회 원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론**
4. **온전한 선교적 교회 실현을 위한 예전과 삶의 통전**
5. **결론**

**서론**

한국교회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그 중에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인정받지 못한다. 세상에 대하여 선교적 사명을 안고 있는 교회로서는 교회 안과 밖의 소통의 단절은 교회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교회 안과 밖의 서로 다른 평가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교회의 교회중심주의적 신앙이 문제의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가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 그 의식과 전통 안에 교회를 약화시키는 요인들이 들어있다. 교회중심주의, 교회지상주의, 성장제일주의 등, 교회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실용주의적 교회관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배타적이며 권위적인 존재가 되도록 한다.

기독교 신앙을 교회 안에 활동으로 여기는 제한적이며 편향된 교회로 치우친 신앙은 삶의 영역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복음 이해에 대한 치우침으로 인하여 신앙의 내용에 까지 불균형을 가져온다. 다종교사회이며 또한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한국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경험하는, 즉 그리스도인들에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생활-예배, 기도, 설교, 교제, 교육 등-은 그리스도인의 신앙형성과 성장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교회중심적이라는 것이 교회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회 안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받고 그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선포와 실천적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경험하는 모든 예전행위는 교회 안에 종교적 차원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영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계하고 그것을 담지해야 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공적, 사회적 책임은 단지 교회 밖의 생활을 별개의 것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포함하고 반영해야 한다. 신앙을 형성하고 실천을 이끌어가는 내용이 통일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신학적으로 균형 잡힌 사고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신학적 사고는 다양한 신학의 관점이나 입장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신학의 토대를 삼을 때 신앙적 경험이나 배경 뿐만 아니라 비신학적 요인들-기질, 취향, 선호도 등-도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신앙에 있어서 보수나 진보는 그러한 입장을 갖기 이전에 형성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성경을 읽지만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이해를 갖거나 때로는 극단적으로 편향된 신학적 관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성경을 읽거나 신학적 사유과정에서 편향된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신앙이나 선교에 열심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롬 10장)

본 글은 온 신학이 제공하는 신학의 통전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는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선교적 교회는 19세기부터 형성되어 온 지리적 개념에 근거한 해외중심의 선교관으로부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선교 운동이다. 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선교적 교회 운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포하는 복음을 진정성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소통하고 그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선교운동이다. 이 과정에 기존의 신앙의 행위를 교회 내부적 활동으로만 제한적으로 이해하거나, 반대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사역을 교회 밖의 사역으로만 생각하는 양극단적 관점을 극복하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행위와 교회 밖에서의 실천행위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두 영역을 연결하는 통전적이며 일관성 있는 신학적 토대가 필요하다. 온 신학이 제공하는 통전적 관점을 통하여 예배, 기도, 말씀, 친교가 교회 안의 행위-모이는 교회-와 지역사회에서의 실천-흩어지는 교회-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신학적 토대를 세우고자 한다.

1. **통전적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온 신학의 이해와 역할**

신앙은 신학적 해석이나 관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다. 성경이나 복음을 말한다고 다 같은 내용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어떤 신학의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 성경, 복음 등의 신앙적 주제를 말하지만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다.[[1]](#footnote-1) 신학의 내용과 방향은 신학자의 관점과 사상에 따라서 정반대의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교회역사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신학적 인식과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온 신학으로부터 신학의 통전적 관점을 발견하고 그 신학적 토대 위에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목회활동을 세워가야 한다. 먼저 온 신학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김명용에 의하면, 온 신학은 “온 세상을 위한 온전한 신학을 의미한다”(91).[[2]](#footnote-2) 교회를 위한 신학도 중요하지만 온 신학은 교회만을 위한 신학이나 교회 안에 갇혀있는 신학이 아니라 교회를 포함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세상을 인도하는 신학”이다(92). 온 신학이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을 위한 신학이라는 점이다. “온 신학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신학이다”(100). 이것은 한국교회가 교회를 너무 중요시하는 나머지 교회절대주의와 교회중심주의에 치우쳐 교회 안에 머무는 신학적 성격을 가진 데 대하여, 그 신학적 범주와 궁극적 목적을 온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신학으로 확장시키는 공헌을 하였다. 교회는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증언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기관으로 세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학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옳다.

온 신학은 성경을 이해하는 통전적 관점을 제공한다. 성경은 어느 한편에 치우친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때 통전적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김명용은 신학적 편향성을 비판적으로 통찰하면서 신학적 균형을 이룬 온 신학을 소개한다. 박형룡의 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개인적 체험에 편향시켰으며, 민중신학은 민중의 정치활동에 치우쳐있다는 것이다. 신학적 당파성은 상황에 따라 의미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개인구원과 교회중심주의적 신앙의 특성을 가진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신앙의 사회적 차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온 신학에서 분명하게 역설한 바와 같이 성령은 개인의 삶 속에 활동하지만 동시에 세계와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생명과 치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3]](#footnote-3) 온 신학은 온 세상의 문제를 신학의 주제로 삼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이며, 복음과 그것에 기초한 신앙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한다.

온 신학은 무엇보다 신학의 균형을 중요시한다. 이런 관점은 특히 아직도 이원론적 관점에서 복음이해와 신앙, 목회와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필요하다. 아래에서 논의할 교회와 목회활동의 중요한 주제들인 예배와 기도, 사귐과 교육, 선교, 목회리더십 등에 있어서 균형잡힌 신학적 관점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짧은 기간에 놀랄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규모를 키워냈으며, 전세계적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외부의 평가는 내부의 평가와 달리 매우 비판적이다. 즉 양적 성장과 규모는 커졌지만 기독교신앙이 지향하는 윤리와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부정적이다. 교인의 수와 교회의 규모에 비해 한국교회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다. 복음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신앙은 강조하면서 복음이 제시하는 윤리와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에는 무지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한국교회의 교회중심주의적 신앙관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교회는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처음 예수를 믿고 개인의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며 교회와 관련된 신앙생활을 가르친다. 그 대부분은 성경을 읽고, 주일성수와 기도, 헌금생활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요소들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그것을 개인의 축복과 성공의 비결로 가르친다.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어짐에도 그에 걸맞은 신앙의 이해와 연륜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신앙의 주된 내용이 교회생활-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의 배제된-에 치우쳐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종교적 차원은 매우 강조하지만 사회적 차원은 설교나 성경공부나 기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신앙과 선교에 많은 열정을 갖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즉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성도의 일상적인 삶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기보다 교회 안의 교인으로 양성되어왔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목회자에게 달려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회자의 목회와 선교의 내용을 형성하는 신학적 관점에 달려있다. 70-80년대 교회성장시대가 남겨준 성장강박증은 목회자의 신학에서 균형을 앗아갔다. 경쟁적 목회방식은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학으로 설교하고 교인들을 양육하기보다는 성장우선주의를 추구하게 된다.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려는 실용주의적 목회관은 신학보다 성장목회를 위한 비결이나 구체적 프로그램을 갈망하게 한다. 결국 한국교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목회자들이 올바른 신학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과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신앙적 용기와 결단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온 신학이 아직은 단순한 형태이지만, 신학의 편향성과 편협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인과 교회와 세상적 차원을 함께 지향하는 통전적 관점을 제공하여 목회자의 올바른 시각을 통해 설교와 예배, 성도의 신앙을 균형잡힌 내용과 방향으로 인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온 신학의 포괄적이며 통전적인 관점과 현재 한국교회가 매우 필요로 하는 교회 내의 신앙과 세상에서의 실천이 균형과 연결을 이루는 다른 신학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에큐메니칼 신학, 공적 신학, 일상의 신학 등은 모두 신앙을 개인과 교회 안에 가둬두는 편협성과 편향성을 극복하며 온전한 신앙과 선교적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신학들이다.

무엇보다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코람 데오”(coram Deo)는 교회 안이나 밖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신앙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원리는 교회와 세상을 함께 강조하는 온 신학의 신학적 방향과 일치하며 또한 한국교회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원리가 된다. 한국교회는 현재 신앙의 일상성을 회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활동에는 열심을 갖고 있지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일상적 삶의 차원을 신앙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의식하는 면은 매우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과 밖의 삶에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에 지배적이던 성속을 기계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직업과 소명에서 성직주의를 극복하였으며 일상적 차원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였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였다. 종교개혁운동을 통해 잃어버린 직업적 소명과 세상적 차원을 회복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였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구약적 차원의 성전중심과 교회의 구별됨, 성구, 주일예배시간, 교회활동, 헌금 등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만 신앙적이며 거룩한 것으로 가르친다. 이에 따라 교회는 강화될 수 있으나 세상 안에서 무기력한 교인으로 존재하는 치명적 약점을 초래한다. 온 신학은 여러 신학들과 대화하면서 목회자들의 신학적 균형을 회복하고 성도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온 신학의 통전적 관점으로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려면,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경험하는 활동들에서부터 통전적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진행되는 예전의 내용이나 교육이 교회 밖에서 실천하는 삶과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 지역교회는 사회와의 활발한 관계에서 봉사와 선교활동을 지향하면서도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즉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두 차원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교회 안의 활동인 예배와 기도 및 말씀선포와 성경공부 등이 소홀히 되거나 약화될까 하는 두려움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적으로 예배와 기도 및 말씀과 교제 등에 역동적이면서도 그 모든 활동이 교회 안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세워나가려면, 이 둘이 통일성을 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신학적 기반을 모색해야 한다.

1. **선교적 교회 원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론[[4]](#footnote-4)**

온 신학의 통전적 관점에서 볼 때 선교적 교회는 한국교회를 지배하는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교회의 회복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즉 교회가 지역사회를 소외시키거나 분리시키는 “방주적 교회론” 또는 지역사회와 분리된 “건물중심 교회론”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함께하며, 친밀한 만남을 통해 대화하고 소통을 이루어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참여하면서 변화를 모색해간다.

바울은 그의 교회론의 중심을 기록한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표현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엡 1:23).[[5]](#footnote-5)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와 세상(만물)과의 관계에서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6]](#footnote-6)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공동체로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약속의 공동체이다. 교회와 세상은 그 특성상 구분되지만 세상의 통치자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선교적 관계를 갖게 된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적어도 세 가지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세상 안에 거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열린 관계를 갖는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누고 실천하는 열린 공동체라는 뜻이다. 둘째, 교회는 소통과 대화의 관계를 갖는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먼저 소통의 문을 열고 대화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셋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란 실천적 의지와 행동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이미 “세상을 향한 운동성”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변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선교적 교회로서 존재하는 지역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 교회가 세상과 갖는 이 세 가지 차원의 관계를 지역교회에 적용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도표:**



1. **지역사회와 열린 관계에서 공존**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와 가져야 할 첫번째 태도는 열린 마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식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지역교회로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닫혀있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교회 자신과 세상에 대한 편협한 신학적 이해 때문이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곳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구별을 넘어 분리적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리된 교회론”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고립시켜 단절의 관계를 초래한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방주적 교회관”을 극복하고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지역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이전에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 인식의 기본이다(요 3:16).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그 아들을 통해 함께하심을 보여주셨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 파송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 없이는 그 자체로 존재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하기 이전에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전도와 선교활동에 열심인 지역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 활동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도를 위한 지나친 목적지향적 활동은 지역사회와 주민을 대상화하면서 교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계를 맺게 한다. 복음전도가 교회의 사명 중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그 활동의 주체가 되는 지역교회와 교인들을 신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교회가 선교하기 이전에 “복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주민을 특별한 활동과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일상적 관계에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대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공간적으로는 지역사회 안에 있으나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선교의 첫걸음은 지역사회와 주민을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며 대하는 것인데, 그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열린 의식과 진정성을 가지고 이웃의 관계로 대하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주민을 대상화하지 않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1.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대화**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소통은 진정성이 공감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지만 소통이 실현되지 않고는 진정한 변화가 불가능하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감을 얻을 때 교회가 하는 일을 사회가 수용하고 함께 참여할 것이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일방적 방식의 활동에 있다.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며, 교회는 복음을 가졌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이원론적 인식으로부터 나온 선교는 자연히 교회중심의 일방적 선교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웃에 대한 고려 없이 복음의 전달과 사회변혁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상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일방적 방식의 전도에서는 지역주민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평소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대화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 역시도 교제의 대상이 주로 동료교인들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은 실제적 대화와 소통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교는 상호주체적 관계에 기반한 소통행위로써 진행되는 것이다.

선교가 상호성에 기반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인간을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이다. 구약의 내용이나[[7]](#footnote-7) 신약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일방적, 권위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의 작은 행위와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존중하면서 스스로 돌이켜 예수를 따를 것을 기다리셨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초청할 때 자신들과의 사귐을 기반으로 언급하고 있다(요일 1:1-3). 복음전도는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 사이에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전하는 자가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와 이미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들과의 진정한 사귐(코이노니아)을 동반해야 한다. 여기에서 선교란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위에 진정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실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 **지역사회에의 참여와 변화**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소통하고 대화하는 이유는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와 세상과의 소통은 복음적 가치를 전하고 공유하는 데 있다. 지역교회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실현되는 운동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수행한다.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자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환경과 제도, 문화 등을 변화시킨다. 한국교회는 주로 개인전도와 영적 구원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로잔언약 5항). 개혁교회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 영역에 미치며,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믿음으로 실천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 해서 반드시 교회적인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지역사회 안에 활동하는 NGO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다. 물론 활동의 출발이나 궁극적 목표는 서로 다를지라도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성은 곧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볼 때 교회가 해야 할 일과 다르지 않다.

아산에 있는 송악교회는 그 지역의 농업이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관행농법으로 실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친환경적 유기농업을 시작하였고, 이에 전체 마을이 함께 참여하여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친환경 마을을 이루는 변화를 가져왔다. 또 부천 새롬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지역발전에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큰 교회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자원이 대부분 교회 안에 있지만, 새롬교회는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발견하여 발굴하고 교회가 그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참여하면서 마을 만들기 운동에서 교회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변화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체적인 실현과정이 된다.

1. **온전한 선교적 교회 실현을 위한 예전과 삶의 통전**
2. **교회 안의 예전과 교회 밖의 삶의 균형을 이루는 예배**

온 신학이 제공하는 통전적 관점은 한국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편협성이나 치우침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신학의 균형을 제공한다. 한국교회는 현실적으로 예배를 중시하며 많은 회수의 예배를 드리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성도들의 신앙이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이것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매일 드리는 새벽예배와 주일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구역예배, 가정예배 등 교회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예배형태는 다양하다. 한국교회는 아직 주일성수를 신앙의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예배 참여를 의무적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신앙의 열심은 예배와 깊은 상관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개인주의와 예배당 안에서의 종교행위로 치우쳐서 초월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축소된 예배를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도피하고 현실을 망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8]](#footnote-8)

예배를 온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회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한국교회에서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식으로 간주된다. 한국교회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표현할 만큼 공간과 시간적 차원에서 거룩함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런 현상은 한편 예배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예배를 교회 안의 종교의식이나 예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배 후 성도들의 삶과는 유리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특정시간의 종교활동에 그치고 세상 속의 삶은 별개로 이해하는 틀이 고착될 수 있다. 결국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결단이 약화되고 세상 안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인이 되고 만다. 예배와 관련하여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온 신학을 통해서 예배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사이에 상관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되고, 세상에서 발생하는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예배에 반영하는가가 그 핵심이다.

예배는 교회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을 차지한다. 교회가 성도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때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기 때문이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기도, 성례전, 성도의 교제 등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필수적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의 모이는 차원과 예전적 차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만일 기독교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점차적으로 신앙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가? 한국교회에서 예배의 균형을 회복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9]](#footnote-9)

우리는 예배를 말할 때 교회 안에서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언 및 봉사 사이에 분리를 극복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올바른 예배는 충분히 예전적이며 동시에 충분히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예전으로 드릴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을 향해 증거할 복음을 지닌 사도공동체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10]](#footnote-10) 예배가 갖는 이 두 가지 차원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신비한 예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시며 전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찬양과 영광을 드릴 뿐 아니라 선포된 말씀에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예배를 통해 하기 때문이다. 예배와 성례전을 통해 교회는 하늘나라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하늘나라는 세상과 상관없는 신비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역사와 세계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하늘나라이며 여기에서 세상을 변혁하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함께 세상을 향한 책임의식을 함께 고백하는 예배이다.

김운용은 웨인라이트를 통해서 예배의 올바른 신학적 이해를 강조한다. 웨인라이트는 예배와 삶의 연결에 대한 강한 비전으로 예배신학을 발전시킨다. 예배와 삶과의 상관성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예배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이 의식(ritual)을 통해서 집중되어야 할 집중점”(the point of concentration)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들은 “그들의 전 존재를 가지고 나아와 예배의식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린다. 예배자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통해 새롭게 된 비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예배자의 삶이나 그것이 속한 세상 전체와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이 윤리적 차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세상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이러한 예배에 관한 통전적 비전이 “예배를 통한 삶과 경험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11]](#footnote-11)

1961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 제3차 총회에서 예배와 삶의 상관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동시에 그 예배는 우리가 증언하고 봉사할 힘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역, 관심거리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친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온다.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며 일상의 옛 일과 새로운 일을 수행하기 위한 용기를 얻는다. 예배는 우리가 자신의 통찰력(perspective)을 회복하도록 도우며 우리를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한다.[[12]](#footnote-12)

그러므로 예배는 경배, 참회, 중보, 간구와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1983년 밴쿠버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 제6차 총회에서도 예배와 세상 안에서의 삶의 상관성에 대한 깊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총회 결과로 발행한 한 문서에서 “예배는 삶과 선교, 교회의 증언과 섬김에 있어서 중심적인 행위”라고 진술한다. 예배와 관련하여 교회의 증인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균형 있는 관계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일상생활을 위해 흩어진다.” 예배의 증언 차원에서는 “예배 후에 예배”(liturgy after liturgy), 즉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서 세상에 대한 섬김이 예전으로서의 예배 후에 삶으로서의 예배로 계속되는 것이다. 이 둘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세상에 대한 섬김이 예배의 섬김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섬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된다.[[13]](#footnote-13)

예배가 단지 교회 안에서 드리는 개인의 예전행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총체적인 신앙행위라고 할 때 무엇보다 화해와 평화의 차원에서 그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 예배한다.(마5:24) 이 화해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화해를 포함한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화해의 사역은 종교적 차원에서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즉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화해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행위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화해의 사역을 예배를 통해 기억하고 감사하며, 동시에 세상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려는 결단을 한다. 이런 화해는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과 영적 차원과 세상적 차원에서 실현되는 화해이다. 그러므로 “예배자들은 교회당에서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와 섬김을 위해 나아갈 때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14]](#footnote-14)

또한 화해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실현되는데 회개 역시 개인이나 종교적 차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다. 회개는 죄 인식을 전제로 하는데 만일 죄를 종교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회개 역시 종교적 차원에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올바른 이해가 올바른 회개를 통한 변화의 영역이나 영향력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예배는 세상을 위한 중보적 차원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발행하는 모든 악과 고통으로부터 제기되는 탄식과 탄원으로 표현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는 예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인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예민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땅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반영되는 장이어야 한다.”[[15]](#footnote-15)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성탄의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예배를 통해 드리는 기도와 찬양, 헌신이 이 땅의 이야기를 잊고 하늘로만 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116).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악행들과 불의로 인해 탄식할 수밖에 없다. 예배가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행위라면, 불의로 인해 고통 당하는 피조물과 사람들을 생각하며 함께 탄식과 탄원을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의무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하여 예배의 성격을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세상과 불의 앞에서 탄식을 드릴 수밖에 없다. 시편에서 수많은 탄식과 탄원의 기도를 볼 수 있는 것같이 “탄식은 기독교 예배 가운데 복원되어야 할 요소”로 지적된다.[[16]](#footnote-16)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예배는 불의와 폭력, 억압과 상처로 얼룩진 세상의 회복과 평화에 대한 간구이기도 하다. … 교회는 세상을 벗어난 게토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간다는 점을 인식할 때 기독교 예배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참여적이 되고 세상을 위한 중보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17]](#footnote-17)

“기독교의 예배는 결코 예배하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야 하며, 예배는 교회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인간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도구도 아니다.”[[18]](#footnote-18) 성도가 드리는 예배와 그의 삶은 분리할 수 없는 변증법적 관계와 상관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올바른 예배란 “거룩한 예배에서 교회 가운데 넘쳐났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되어야 하고”(178),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리와 내용이 되어야 한다.

1. **세상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예배가 상술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중보의 차원을 포함해야 한다면 그것은 예전 안에 있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실현된다. 한국교회 공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개인과 교회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기도의 내용에는 평소에 기도자가 어떤 신앙적 관심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가 반영된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서 새벽기도부터 시작하여 매일 기도하고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 다양한 소그룹 기도회까지 포함하면 기도생활을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온 신학의 통전적 관점에서 보면 질문이 달라진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횟수와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 많은 기도에 어떤 내용을 담아 기도하는가,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수준과 그의 삶으로 연결된다. 기도에 대한 한국교회의 열심에 더하여 그 내용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담을 수는 없을까? 필자는 내면적 차원과 외적 차원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기도를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찾으려고 한다.

 존 쾨니그는 기도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중보기도는 어느 다른 형태의 기도보다도 더 성과 속, 또는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를 가로막는 울타리를 걷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19]](#footnote-19) 우리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반향인데 “예수님의 하늘의 중보기도사역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제사장 소명을 형성하고 강화시키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이다(요 17:1-9, 24절을 보라).” 종교개혁자들이 성도의 만인제사장직을 주장한 바대로, 우리는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역을 담당하게 된다. 중보기도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실행할 수 있다. 교회와 세상, 예배와 세상 속에서의 삶, 하나님과의 화해와 이웃과의 화해가 서로 유리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도 속에서 세상을 위한 중보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중보기도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살롬이 실현되어야 할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세상을 위한 구체적인 중보기도를 배우기 위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악한 일과 고통과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걱정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떼제 공동체는 전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불의와 상처를 놓고 기도한다. 떼제 공동체를 움직이는 원리는 묵상(기도)과 투쟁이다. 로제 수사는 이 둘이 꼭 같은 근원이신, 사랑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증언한다.[[20]](#footnote-20) 여기에서 투쟁이라는 표현은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난과 투쟁의 현실 한복판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중보기도를 드리며 그것을 통해 세상이 폭력을 몰아내고 평화와 화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21]](#footnote-21) 떼제의 기도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수도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보기도 속에서 온 세상의 현실을 대면하고 그들의 탄식과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모든 영역인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종 등 세상의 모든 주제들을 기도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간구한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참여는 먼저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출발한다. 필자가 경험한 독일교회는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교회였다. 독일교회가 드리는 세상을 섬기는 구체적인 디아코니아는 먼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로 시작한다. 매주 드리는 공 예배시간 중에 헌금시간 다음에 구체적으로 온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린다. 예를 들면, 어느 주일은 아프리카의 전쟁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다음 주는 브라질의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어느 주일엔 한국의 서울, 하월곡동의 맞벌이 부부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며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맞벌이 부부가 어린 자녀들을 집안에 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일하러 가있는 동안 집 안에 어린아이들이 장난하다가 집에 불을 질렀고 밖에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불에 타 죽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비극적인 사실을 한국에서 사역하던 독일의 선교동역자가 독일교회에 보고하면서 그 내용을 독일교회에 서신으로 알린 다음 그 주간에 모든 교회들이 서울의 맞벌이 부부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 후 구제헌금까지 하였다. 독일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중보기도를 예전 안에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선교적 관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기독교 예배 안에서 중보기도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며 동시에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재확인하게 된다. 지역의 교회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위한 중보기도로부터 시작한다. 부천 새롬교회는 지역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사회적 중보기도를 주일예배의 예식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도표: 생명망 목회



 **“회중기도가 변화하고 있어요”(부천 새롬교회)**

2014년 마지막 주일 대표기도 (이춘립 집사 4구역)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 대학신입생 오티 중 건물 붕괴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는 한 지역, 한 고등학교, 한 학년 아이들 대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무지막지함, 부도덕함, 무신경함, 정부의 무능함을 지켜 볼 수 밖에 없었던 그 가족들과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 새삼 두렵습니다. 우리로 우리 가정, 우리 아이는 다행이고 괜찮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적으로는 올 한해 많은 일들을 이루어 냈고 또 새로운 일에 시작점에 있습니다. 미리 계획한 일이 아님에도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척척 진행되어 가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모든 일이 주님이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협동조합이나 꼽이포차, 마을 방송국 등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협동조합, 떡카페는 점점 더 탄탄하게 자리 잡혀지길 원하오며 꼽이포차나 마을 방송국팀에게도 힘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주님이 살아 움직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새롬교회가 약대동에 터를 잡고 지역복지, 지역선교,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27년이 지나고 있는 올해에는 유난히 외부손님들이 약대동 마을 탐방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비로서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가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적 교회 생명망 선교를 지향한다. 사회적 중보기도는 새롬교회의 지역사회를 향한 중요한 내용이다. 한국교회의 기도를 중요시하는 전통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개인중심과 교회중심으로부터 사회를 향한 관심으로 확장시켜 실시한다. 새롬교회 교인들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 먼저 지역사회와 한국,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따라 실천적인 활동과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인들은 신앙의 관심사의 변화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위에서 살펴본 독일교회나 부천 새롬교회와 같이 기도의 열심에 사회적 관심사를 담아내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1. **통전적 관점에서 성경읽기**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세계선교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는 선교사가 국내에 들어오긴 전에 이미 한국말로 변역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인은 마치 성경의 진리에 목마른 사람처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신앙을 갖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전기를 읽어보면, 아직 선교사가 방문하지 않은 지역에 세례를 받기 원하는 30명의 신자들이 있다는 편지를 받았었다.[[22]](#footnote-22) 그들은 누구에게 전도를 받지 않고 쪽복음을 사서 읽다가 믿음을 갖게 된 자생적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러한 성경중심의 한국교회 특징을 “성경기독교”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성경을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는 사경회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전통을 형성했다. 1910년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보면 당시 한국 전역에 교회를 통한 사경회 조직이 형성되었고 그 모임의 숫자가 경이로울 정도였다.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공부하여 생활 속에 실천하는 모습은 한국교회가 가진 장점임에 틀림없다.[[23]](#footnote-23) 이러한 성경을 사랑하는 전통은 점차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데 성도들이 매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거의 모든 교회에 확산되었으며, 심지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체를 필사하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에 대한 사랑으로 충분한가? 한국교회가 성경을 편향적으로 읽고 있지는 않은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편협하고 편향적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목사의 설교에서 아모스를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를 질문한 적이 있다. 그 친구의 답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례로, 방송설교로 자주 들려지는 목회자들의 설교주제는 열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복음적 혹은 영적인 면을 강조하며 선포되는 설교의 주제는 믿음, 비전, 구원, 축복, 성공, 치유, 안정, 회복, 성장, 교회 등으로 제한되어 반복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많은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듣는 기회가 많으며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는 눈이 위에서 언급한 주제들이나 개인적, 영적, 교회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제한되어 있다. 온 신학의 통전적 관점에서 성찰해보면, 한국교회가 성경을 사랑하고 공부하는 열심을 온전한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 성경의 보편적 이해를 통해 복음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한다.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개인적 메시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이 복음은 동시에 세상 전체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우주적 메시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복음의 광범위한 차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원인은 구원론과도 연관성이 있다. 구원을 개인과 하나님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 “(요 3:16)라는 말씀은 복음의 우주적 차원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다. 복음의 통전성에 대하여 남미의 복음주의자 르네 빠딜라는 잘 설명하고 있다. 빠딜라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은 단순히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는다”고 진술한다.[[24]](#footnote-24)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지만, 또한 복음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전체를 선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복음은 전세계를 포괄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동일하다.

한국교회는 개인주의 영향을 받아 개인구원과 개교회주의가 신앙의 내용을 지배한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응답한다는 점에서 신앙의 개인적 차원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내용 자체는 개인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인류와 피조물의 구원과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 온 세상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지리적 차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실현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복음적이라고 말하면서 개인적이라는 의미와 동일시하는 편협한 이해를 극복하고 전세계 모든 영역에 대한 복음선포와 실천적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 즉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25]](#footnote-25) 한국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전통 위에서 개인주의적 시각을 극복하고 균형잡힌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

1. **선교적 증언으로서의 친교(코이노니아)**

한국교회는 전세계를 향한 선교의 열정은 있으나 취약점이 있다. 그것은 선교하는 교회(doing mission)의 모습은 있으나 존재 자체가 선교적 의식을 가진 선교적 교회(being mission)는 아니라는 점이다. 한 목회자는 지역사회와 교제가 단절된 지역교회를 이렇게 표현한다: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에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은 없다.” 한국교회는 해외지역에 대한 선교는 활발하지만 가까운 이웃에게는 닫혀 있는 교회이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정성 없는 선교, 프로그램 중심의 선교, 교회 자신을 위한 선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교회는 지역주민을 선교의 대상으로는 여기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함께 사귐을 갖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26]](#footnote-26)

박화경은 한국교회의 친교(코이노니아)가 갖는 문제점을 6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친교가 활발하지만 교회 밖과의 친교는 약하다. 둘째, 교회 안에서도 친교가 그룹이 지어있고 다른 그룹과는 친교가 약하다. 셋째, 교회 안에서 친교가 연령이나 세대로 구분해놓아 세대간의 친교가 약하다. 넷째, 한국교회의 친교가 때로는 배타적 특징이 나타나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교회에는 나오지만 교회공동체에 소속을 거부하는 방관자 교인이 증가한다. 여섯째, 친교가 섬김을 나아가지 않고 친교 자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27]](#footnote-27)

친교는 단지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의 교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서로 이해하고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코이노니아는 훨씬 그 범위가 넓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류가 하나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친교는 교회 안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울타리를 넘어 전세계와 우주를 향한 개방성을 갖는다. 세상은 인종과 민족, 지역과 국가, 문화 등 요인으로 배타적 친교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배타적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로 초청하는 열린 친교공동체를 지향한다. 복음서는 예수의 삶과 공생애를 당시의 사회적 통념과 배타적 경계선을 넘어가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 예수의 사역은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달리 주변과 단절된 중심에 머물지 않고 주변으로 나아가는 사역이었으며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주변인과 약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사역을 행하였다. 이러한 예수의 친교와 사역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언이 된다.

누가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과 친교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 당시에 유대중심의 편협한 구원론과 교회론을 넘어 이방인의 세계로 넘어가는가를 매우 역동적으로 묘사한다. 당시에 만날 수 없었던 두 민족의 친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로 전파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차별성도 존재하지 않는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의 보편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세상을 등지는 닫힌 공동체가 아니다. 먼저 부름받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친교를 회복하고 그것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친교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친교는 세상을 향한 증언의 친교적 특성과 영향력을 포함한다.

친교가 선교적 증언의 역할을 하는 점은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사도 요한은 1장 1-2절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먼저 밝힌다. 그 분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으며 이 영원한 생명을 눈으로 보았다고 증언한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1-2절에서 사도 요한과 그의 동료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한 만남과 친교를 가졌음을 증거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러한 친교에로 초청한다. 와서 우리와 사귐을 갖자.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는 사귐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들의 공동체로 초청하는 행위로 묘사한다. 이 본문을 통해 진정한 선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전에 자신들과의 친교에로 초청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한국의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은 없다”라는 진술의 의미를 재고해보면 한국교회가 친교를 상실한 선교를 하는 교회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doing mission)가 되기 이전에 먼저 선교적 교회(being mission)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지역주민들과 이웃으로 함께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선교는 친교의 바탕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교회중심적 선교, 성장주의적 선교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친교(사귐) 없는 선교”를 수행해왔지만, 이제 온 신학으로부터 배우는 통전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친교(사귐) 안에 있는 선교”의 실천을 지향해야 한다.

**결론**

한국교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전략 중 하나로 선교적 교회를 제시하였다. 선교적 교회가 교회의 모이는 차원과 흩어지는 차원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면을 연결하고 통일하는 신학적 관점이 필요하며 그것을 온 신학의 통전적 관점에서 해결을 찾고자 했다. 이것을 위해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의 예전과 교회 밖에서의 실천을 함께 아우르는 신학적 이해와 열린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이른바 선교적 목회 리더십이 필요하다.

선교적 목회 리더십

(Missional Pastoral Leadership)



**강사: 한국일 교수**

  **선교학**

**장로회신학대학교**

 **\*논문: 선교적회론**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리등**

**\*역서: 선교학 사전 (공역)**

**\*저저: 선교학 개론**

**세계를 품는 교회 등**

1. **서론**
2. **한국교회에서 목회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
3. **왜 선교적 목회 리더십인가?**
4. **선교적 목회 리더십을 실현하는 원리들**
5. **결론**

**서론:**

선교적 교회가 우리시대에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를 내리는 것에 관해서는 이견이 많다. 선교적 교회는 기독교 국가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던 서구교회에서 더 이상 기독교 사회가 아닌 상황에서 교회와 선교를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다. 그런 점에서 선교와 교회 상황의 변화가 선교적 교회를 태동시켰다고 볼 수 있다.[[28]](#footnote-28)

선교적 교회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인들을 열거해보자. 우선 선교하는 교회(Doing Mission)와 선교적 교회(Being Mission)의 구분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근대선교 이후에 세계선교의 정의와 패러다임을 결정해 온 윌리암 캐리의 선교 패러다임, 즉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를 통하여 선교를 수행해 오던 선교이해와 사역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요청한다. 선교를 해외 지역으로 제한하고, 선교를 선교사를 통한 사역으로 이해하던 근대 선교 패러다임으로부터 선교현장과 교회 상황의 변화는 새로운 선교이해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모든 현장이 선교 현장이며, 서구 지역도 선교현장이 되었고, 선교사에게만 적용하던 “선교” 용어를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게 된 것이다.[[29]](#footnote-29)

20세기 중반 이전 까지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와 파송받는 선교사 중심의 선교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패러다임을 교회 중심의 선교, 선교사 중심의 선교로 호칭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등장하면서 선교는 교회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갔다. 물론 세상에서 선교를 수행하는 교회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선교의 주체와 출발점을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기고, 선교 영역 역시 개인과 교회적 차원에서 세상 전체 영역으로 확장하게 된 것이다.

네델란드 선교학자인 호켄다이크는 이런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급진화 시켜 전통적 선교 개념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차원의 활동과 선교를 동일시 하는 급진적 선교관을 제시하였다.[[30]](#footnote-30) 이런 개념은 에큐메니칼 진영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세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인식하면서 선교의 영역을 교회가 참여하는 일반적인 영향력으로 확장시켰다.

선교적 교회 운동이 등장한 것은 서구교회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하나님의 선교에서 약화된 교회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이런 이해는 교회중심의 선교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교의 관점은 하나님의 선교이지만 선교를 선교사나 선교기관과 같은 특별한 대상에게만 위임하는 선교이해로부터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위임으로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 이후에 늘 에큐메니칼 진영에 제기되는 문제, 즉 교회론의 약화가 어느 정도 보완되고 있다. 교회 중심적 선교 패러다임은 교회 자체가 선교의 주체로 역할을 하였지만, 선교적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에 기초하여 세상으로 파송받은 교회로서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존의 교회 중심적 모델은 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모이는 교회”의 교회관을 가졌다면, 선교적 교회는 세속 사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폭 넓게 참여함으로 교회 밖의 다양한 기관이나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차적으로 지역사회 속에 실현하려는 운동을 전개한다.

교회가 속한 지역이 그 동안 선교영역에서 배제되었는데 선교적 교회 운동에서 회복되었다. 세속화 과정이 이런 생각을 촉진시켰다. 기존의 선교가 개인적, 교회적, 영적 차원에 집중되었다면 선교적 교회에서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와 넓은 사회적 차원의 선교현장을 수용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였다. 선교적 교회에서 지역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해외 중심의 선교의 단편적 이해를 극복하면서 선교현장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그 가운데 지역도 선교현장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며, 또한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론, 선교론을 구축함으로 지역과 주민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한다. 선교하는 교회가 활동 중심이었다면 교회는 여전히 이웃을 대상화하면서 복음의 진정성을 훼손하였겠지만 선교적 교회에서는 주민을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해하면서 활동 이전에 존재와 의식, 관계에서 공존과 소통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현장으로서의 지역성과 함께 지역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역할을 회복하였다. 선교적 교회는 결국 온 세상을 선교현장으로 인식하고, 또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촉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한국교회와 같은 신생교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시대에, 특히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의 리더십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본 글에서 제시하는 선교적 목회 리더십은 책을 통해서 보다 필자가 전국에서 활동하는 모범적인 목회자들의 실천적 리더십의 현장 사례연구를 통한 그들의 삶, 활동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려고 한다.

1. **한국교회에서 목회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

한국교회는 초기 핍박과 박해 속에 신앙을 시작함으로 비기독교사회를 지배하는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도피하고, 다종교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자연히 교회 안으로 모이는 교회를 강조한다. 초기에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대표적 지식인이며 수준이 높은 위치에 있었다. 70-80년대 급성장 과정에서는 목회자의 비전과 추진력, 설교 등이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이런 한국교회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구조는 목회자의 역할에 비중이 높아진다. 장로교회에 당회가 있으나 한국교회는 대부분 목회자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크다. 이민 교회는 예외적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성장과 부흥은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뒷받침 되었으나 그들에게 동기를 제공하고 헌신적이 되게 하는 데는 목회자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회, 특히 갑자기 성장한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의 일반적 패턴을 드러낸다. 교회 헌금 유용이나 재정 횡령, 성적 스캔들이 대표적이다. 목회자에게 가장 멀리 있어야 하는 현상들이 최근 목회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그 동안 목회자에게 교회의 전권이 주어진 까닭이다. 70-80년대 한국교회의 급성장을 실현한 주 요인으로 작용했던 목회자의 주도적 역할이 이제 부작용으로 기능한다. 한국사회의 종교신뢰도 조사에서 개신교가 천주교, 불교 다음으로 신뢰를 받고, 개신교 자체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목사들의 문제가 큰 원인이 되는 것 같다.

그러나 반대현상도 있다. 13년 전부터 전국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선교적 교회원리에 적합한 교회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가 살아있고, 내부적으로 화목하며 교인들이 행복함을 느끼고, 또한 지역사회가 그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발전을 경험하는 교회들은 목회자의 역량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을 본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같이 역사가 짧고, 교회 전통이나 문화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은 목회자의 역량과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목회자들로부터 교회와 그리고 교회로 인한 사회 변혁을 기대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정리하면, 오랜 기독교 역사를 통해 사회 안에 기독교 문화와 전통 뿐 아니라 든든한 교회 조직을 갖춘 서구교회와는 달리 한국교회는 지역교회 중심으로 형성된 개교회 중심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형태는 거의 모든 신생교회(younger church)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대부분 목회자 중심 구조를 형성하였다. 목회자의 목회관이나 역량에 따라 개교회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70-80년대 급격한 교회성장을 이룬 것은 물론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목회자의 비전과 동기부여, 추동력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좀더 강조하면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목회자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즉 목회자에게 의존적인 교회 형태를 형성해 왔다.

 목회자 중심 구조는 목회자의 리더십이 좋은 경우에는 교회가 성장하고 활성화되는 순기능으로 작용하지만, 반대로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역기능도 있다. 물론 목회를 포함하여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과 기구가 있으나 한국교회는 실제적으로는 목회자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많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와 같이 전통과 역사가 짧은 교회체제는 앞으로 건강한 교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건강한 목회리더십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십은 한 사람이 가진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그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게 하는 능력으로 이해한다.[[31]](#footnote-31) 목회자가 가진 신학과 신앙을 통해 형성된 목회활동의 내용을 교인들과 공유하고 함께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은 목회자의 리더십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자의 리더십은 교회 생활과 관련된 교회중심의 리더십이었다. 목회자는 예배와 기도, 성경공부, 전도와 관련하여 교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하게 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리더십의 형태는 시대와 상황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32]](#footnote-32) 권위주의나 성장시대에는 목회자가 주도하는 리더십이 영향을 발휘하였다.[[33]](#footnote-33) 그러나 오늘과 같이 성장시대를 넘어 침체와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에는 우리시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유연한 목회 리더십이 요구된다. 기능적인 면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 실행방식을 과거와는 다른 것을 요구한다.

1. **왜 선교적 목회 리더십인가?**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목회 패러다임이 20세기 중반부터 서구 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변화에 대한 교회론적, 선교론적 응답이 선교적 교회 운동으로 제시된다. 선교적 교회론의 정의와 특징, 원리에 대하여 이미 출판된 자료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복하여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34]](#footnote-34)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사회와 분리되어 활동하는 교회 제도에서는 교회 안에 모여있는 교인들을 보살피는 “교회 안의 목회활동”으로 충분하였다. 이런 교회를 “모이는 교회 중심의 형태”로 지칭한다. 특히 20세기 중반까지 전통적인 서구 교회상황에서 모이는 교회 형태로도 교인들이 모이고 운영에 문제가 없었을 때나, 한국교회의 경우, 70-80년대 급성장하여 증가하는 교인들로 인해 교회 안에서의 목회활동으로 인하여 목회자는 교회 밖에 관심을 둘 필요도 느끼지 못하였다. 교회 밖에서의 활동은 주로 교인들의 전도활동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서구교회나 한국교회는 더 이상 모이는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성장이론이 교회를 견인하는 유효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기존의 교회중심적 교회관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기존의 교회론과선교론에 동시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교회는 더 이상 모여든 교인들 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며, 선교 역시 멀리 해외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만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그로 인한 새로운 신학적 각성운동이 교회와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된 것이 선교적 교회 운동의 기원이다.

교회가 더 이상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교회로서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선교현장으로 인식한 선교적 교회로서 자의식을 갖고자 할 때 기존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목회 역시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는데 적합한 형태인 “선교적 목회”형태로의 변화를 요청하게 된다. 사실 선교적 목회란 명칭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필자가 선교적 교회에 적합한 목회 형태로 새롭게 사용한 용어이다.[[35]](#footnote-35)

필자가 선교적 목회 리더십에 대한 생각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선교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리더십으로부터 얻은 통찰에 기인한다.[[36]](#footnote-36)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거의 무에서 출발한다. 현지 교회와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사역의 내용이나 방향을 위탁 받거나, 현지 선교사회의 선임 선교사의 안내를 받아 사역을 계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단 대부분 교단 소속에 개교회 파송의 선교사에게 이런 경우는 드문일이다. 대부분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시작해야 한다.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선교사는 마치 전혀 보장받지 않은 사람처럼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시작한다.

선교사의 활동은 어떤 안정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머물러 있을 곳도 없이 현지 사회로 나가는 운동적 성격을 갖는다. 선교사는 현지인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현지인을 대한다. 혹 현지인과 갈등이나 분란이 발생하면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교사는 씨를 뿌리는 사역이다. 선교사 당대에 어떤 결실을 볼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 믿음과 희망을 갖고 시작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사역 기간 중에 볼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렇게 조급한 생각을 갖는 것이 선교사역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선교사의 섬기는 영성, 미지의 영역에 길을 내는 개척정신, 살아있는 운동성, 씨를 뿌리는 인내심은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이제 성장시대를 넘어서 불신의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 입장에서 선교적으로 목회하려는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한 자세와 태도가 요구된다.

교회가 존재의 위기의식을 자각하면서 목회자는 더 이상 교회 내부만을 활동영역을 이해하는 제도권의 목회자부터 교회 밖으로 나가는 운동권의 목회자로 변해야 한다. 이민 교회는 이민 사회에서 종교적 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민 사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목회자 역시 교포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 와는 다른 선교환경, 즉 “선교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개교회중심과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교회론을 지향하였으며 지역사회에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은 없는 “친교 없는 전도와 선교”활동을 해왔다. 이런 자기중심적 교회는 성장시기에는, 즉 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교회가 신뢰를 받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문제로 노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면서 지역사회로부터 개교회가 분리되어 스스로 고립적 존재가 되었는가를 실감하였지만, 여전히 모이는 교회 중심의 자기 인식과 체제를 가진 개교회는 이 문제에 직면하여 극복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성장운동의 아류 형태의 다양한 전도 세미나를 찾아다니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있으며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활동으로 고착되어 있는가를 교회의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필자가 방문한 서울의 한 지역에 있는 교회는 개발되지 않은 전형적 동네 안에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 건물의 외부와 내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 있어서 완성되면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될 것으로 보였다. 목사님에게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교회 옆에 놀이터가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엄마들을 위해 교회 옆의 빈 공간에 의자를 놓아 주민들의 쉼터를 만들고 교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친 교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면 어떻겠냐는 필자의 제안에 목회자는 놀라운 답변을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건물 리모델링을 완성한 후에 주민들이 교회로 몰려올 까봐 장로님들이 걱정한다”는 말씀을 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주민들이 교인이 되려고 오면 좋겠지만, 다만 건물이 아름다워 사용하고자 몰려들까 보아 염려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 이면에 교회는 교인들을 위한 건물이며 평소에 지역사회나 주민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다. 주민들은 교회의 전도 대상일 뿐이지 평소에 교회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교회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친교 없는 전도와 선교, 평소에 단절되고 특별활동으로만 실천하는 전도와 선교, 교회 만을 위한 교회, 그런 교회는 오늘의 불신과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목회관이며 패러다임이다.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기 위해 적합한 목회는 선교적 목회형태이다. 선교적 목회는 기존의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영역을 교회 밖의 지역사회로 영역을 확장하는 목회이며, 교회 제도를 유지하고 그 틀 안에서 정적으로 수행하던 목회의 경직된 제도를 살리는 운동성을 발휘하는 목회형태를 말한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정체된 상황에서 교회 제도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목회자가 교회의 문을 열고 지역사회로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가야 할 안정된 길이 보였으나 이제는 길이 보이지 않는 숲에 길을 내는 개척정신이 필요하다. 다문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특별히 몽골 선교에 전력투구 하는 유해근 목사는 자신의 목회철학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목회”, “최고는 아니지만 최초를 추구하는 목회”라고 지칭한다. 그는 중도 실명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한국에 유일한 몽골 학교를 세워 몽골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앞으로 이 학교 출신 중에 몽골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37]](#footnote-37)

필자가 만난 한 농촌교회 목회자는 10년 넘게 충청도의 한 작은 지역에서 교인수도 거의 변함이 없는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해왔다.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지역사회로부터 별 관심을 얻지 못하고 교인 중심으로 존재하는 교회였다. 더구나 교인들은 지역주민지역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였다. 교회 안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목회자는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열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선교적 교회를 듣고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지역에 토지 1000평을 임대하여 밭 농사를 시작한 것이다. 그 동안 목회자는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관계는 주로 교인들의 역할이라고만 생각하고 목회자는 적은 교인들이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과 보냈다. 그러다가 목회자가 교회 밖으로 나가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 주민들과 실제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다. 농사일에 관해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그 동안 교회 내부적인 일과 교인들과의 관계 안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회 밖에 나갈 때 지역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런 새로운 관계형성은 교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필자는 목회자가 교회 영역을 넘어서 지역사회로 나가 주민들을 만나게 되는 활동을 “선교적 목회”라고 부른다.

한 지역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지역사회에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주민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목회자는 자신이 30여년 전에 이 교회 담임목회자로 부임할 때 이미 선교적 교회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마을 지기로 부임한다”고 자신에게 선언한 것이다. 선교적 교회나 선교적 목회에 대한 체계적 신학이론을 배우지 않았지만 이 목회자는 이미 그 이론과 원리를 자신의 교회와 목회활동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야 말로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는 선교적 목회활동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제는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과감하게 교회가 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성장 시대의 “오는 구조”come-structure)로부터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는 “가는 구조”(go-structure)로 목회 방향과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선교적 목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목회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제도권으로부터 운동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목회 리더십을 형성해야 한다.

기존의 리더십 중에 선교적 리더십은 주로 해외와 타문화권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리더십으로 생각하고 형성하였다.[[38]](#footnote-38) 이 리더십에서는 주로 해외선교활동을 지향하는 타문화권의 선교활동에 필요한 리더십을 언급한다. 또한 기존의 목회 리더십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 활동을 설명하고 지원하는 리더십에 중심을 둔다. 필자는 오늘의 시대에 이 둘을 합한 선교적 목회 리더십이 지역교회 또한 세계 선교현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39]](#footnote-39) 그렇다면 기존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목회 리더십과 필자가 제안하는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차이는 무엇일까?[[40]](#footnote-40)

**“목회 리더십”과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차이**

목회자의 관심은 교회 안에 모인 성도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목회적 일이지만, 선교적 목회리더십에서는 교회 안에 일뿐 아니라 교회 밖의 지역사회로 관심의 범위를 넓힌다. 목회 활동영역은 주로 제도적 교회와 건물 안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목회활동이다.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공부를 가르치며 심방한다. 선교적 교회 정신과 원리를 실현하는 목회자의 선교적 목회 리더십은 건물과 제도적 교회 밖으로 나아가 지역주민들과 대화하고 지역사회의 일에 참여하면서 목회 활동영역과 내용을 확장한다. 기존의 교회 중심의 목회를 실천하는 목회 리더십과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는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차이를 몇 가지 대표적 항목에서 도표로 정리해보자.

도표:

|  |  |  |
| --- | --- | --- |
| 항목 | 목회리더십 | 선교적 목회리더십 |
| 교회구조 | 오는 구조(come-structure) | 나가는 구조(go-structure) |
| 언어 | 교회적, 신앙적, 종교적 언어 |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이중언어 |
| 리더십의 초점 | 목회자와 그의 비전 | 교인을 세우는 것 |
| 교인의 자의식 |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 삶의 현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
| 의사소통방식 | 권위주의적, 수직적, 일방적 | 상호 존중과 소통 |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특징을 종합해보자. 교회와 사회의 관계개선, 교회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에 관심, 교인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소통에 노력, 지역사회 이해와 변화에 관심, 교인을 교회 안에 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 활동으로 동기부여, 상호소통적 대화, 성장보다 지역사회를 섬김과 봉사, 유지보다 변화를 추구. 교회 울타리를 넘어 사회에 대한 열린 마음, 지역을 목회 대상으로 여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존중하는 마음, 상호적 소통과 대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통전적 신학, 자신에게 솔직한 마음, 솔선수범하려는 노력(가르침과 삶의 일치를 추구), 섬김과 협력, 동행, 변화를 추구(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기꺼이 가려는 노력), 분명한 목회 철학과 방향, 소신, 상황파악과 이해능력을 갖추고 있다.

1. **선교적 목회 리더십을 실현하는 원리들**

지역교회차원에서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 목회자는 선교적 목회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특징들을 교회와 사회 현장에 실현하기 위해 적어도 다음의 원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원리들은 필자가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1. **진정성의 리더십**

필자가 선교적 교회 원리를 실현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살펴본 결과 그들은 모두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하는 태도와 교회 밖에 지역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진정성은 과거에는 목회자의 역량과는 상관없는 내적으로 순수한 마음과 태도로 인식하였지만, 오늘과 같은 불신과 저성장 시대에는 교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가 지역사회에 까지 미치는 목회자의 역량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필자는 진정성을 발견한 목회자에게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을 볼 수 있었다. 첫째 자신에게 솔직한 마음과 태도, 둘째 자신이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목회자 자신의 삶에서 살아내려는 노력, 셋째 교인들을 자신의 목회 비전을 실현하는 대상이나 도구가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신앙의 동반자, 넷째 자신이 추구하는 목회에 대한 소신과 열정이다.

진정성은 리더십의 기본인데 이 주제를 다룬 리더십의 책을 찾기 어렵다.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진정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는 거짓 없는 솔직한 태도이다.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는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본질로서 진정성이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인간관계와 신뢰회복을 위한 리더십의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목회자 주도형의 리더십은 목회자가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 추진력은 있었지만 이 방식은 성과중심의 리더십을 형성하였으나 교인들과 소통이나 동행의 관계를 만들지 못하였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작동한 기존의 리더십에서는 목회자는 노출되지 않고 그의 목회적 기능과 역할만 부각되었다. 즉 목회자 자신 보다 그가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가 중요시 되었고 목회자 자신에 관해서는 질문이 없었다. 그러나 성장 시대 이후를 맞는 오늘의 상황에서 교회와 사회는 목회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하고 있다.

진정성의 리더십은 목회자의 기능과 역할 이전에 목회자가 가진 태도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리더십이다. “메신저가 메시지이다”라는 구호처럼 기존의 목회자 자신과 그의 목회적 기능과 역할을 분리하는 것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실제로 목회자의 역량은 그가 가진 신앙과 성품, 마음으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41]](#footnote-41) 성장시대에 우리는 목회자의 기능만을 중시해왔지만 이제 저성장 시대에 목회자의 모든 것이 그대로 노출되며 목회자의 역량은 그의 내면적 특성이 목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진정성은 한 마디로 목회자가 가진“교회와 세상, 사람에 대한 **진실한 열정**”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진실함이며, 다른 면에서 목회에 대한 열정이다. 이 두 요소가 합하여 목회를 진실함과 열정으로 수행하는 태도를 진정성의 리더십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만일 진실함이 없이 열정만 있다면 이런 목회는 성도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후자가 없다면 진실함이 방향을 상실할 것이다. 목회자의 진실함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진정성의 리더십은 그의 목회관을 형성해 온 일관성 있는 목회적 소신과도 깊은 연관을 갖는다. 진실한 열정을 가진 목회자는 그들이 가진 에너지와 영감과 소신에 의한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목회를 통해 교회와 사회에 변화를 일으킨다.[[42]](#footnote-42)

상황에 따라 조석으로 변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형성되어 온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소신이 그의 목회를 일관되게 이끌어가는 특성 같은 것이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하는 목회자의 진정성의 태도가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리더십이 지역교회의 특성을 형성하여 그것이 곧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태도와 관계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리더십의 형태가 지역사회를 대하는 지역교회의 모습을 형성한다. 진정성에 기반한 목회자의 리더십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의 신뢰와 소통의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동일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는 진정성의 리더십은 사역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 하는 관계중심으로 형성된다.[[43]](#footnote-43) 필자는 사례 연구를 통해 교회 안에 불신,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불신을 해결하고 교회 활력을 찾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져온 목회자의 리더십으로부터 모두를 감동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기초로 필자는 진정성을 가장 우선적 원리로 정하고 싶다.

사례) 수원성 교회 안광수 목사

수원성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하고 있는 안광수 목사의 리더십의 특징은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목회활동이다. 안목사는 개척초기부터 지금까지 새신자 교육을 직접 담당한다. 대부분의 교회가 새신자 교육은 부목사에게 맡기는 경향인데 안 목사는 바쁜 목회 일정에서 각 2개월 과정의 새신자 교육을 일년에 2회 담당하며 지난 33년 동안 다른 일정으로 교육을 빠진 횟수가 10회가 넘지 않는다. 이런 목회적 자세에서 안목사가 담임목사로 성도를 향한 애정과 열정이 어느 정도 인가를 알 수 있다.

안광수 목사가 양육한 성도 중에 지금 아프리카 가나에서 활동하는 이명석 선교사가 있다. 이 선교사는 대학생 시절에 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 불신자였는데 전도를 받아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당연히 안목사가 인도하는 새신자 반에 등록하였는데 그 반은 처음에 몇 십명에서 출발하여 중도에서 탈락하고 2명만 남았다가 결국 이 청년만혼자 남았다. 성장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로 많은 일로 바쁘기 때문에 혼자 남은 이 선교사를 다음 기수에서 공부하려고 권면하려고 생각하다가 기도 중에 “한 사람이 변화면 세계가 바뀐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청년만을 위한 새신자 교육을 끝까지 마쳤다. 과정을 마친 청년 이명석은 세례를 받고 선교사가 될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였다. 결국 이 청년은 안 목사에게 세례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국내에서 여러 곳에서 사역과 훈련을 거친 후 가나에서 16년 째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 선교사는 본 교단(예장 통합)의 선교사로 가나와 독일 팔츠 주 교회의 삼자 에큐메니칼 협력 선교사로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훌륭한 선교사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배후에 안광수 목사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열정을 다한 목회적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필자는 성도를 향한 “진실한 열정”, 진정성의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싶다. 많은 목회자가 성도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보다 교인 중 하나인 숫자로 대하기 쉽다. 특히 성장시대에 한국교회는 성도를 숫자와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선교적 목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성도를 존중하고 자신의 목회적 역량과 책임을 다하는 진정성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목회자의 태도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신뢰를 받을 뿐 아니라 교회 밖의 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역시 신뢰를 얻게 되며, 이러한 신뢰는 교회의 “선교적 인프라” 또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1. **개척정신의 리더십**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두 번째 특성으로 개척정신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의 교회를 방문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은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형성되어 온 교회 조직과 기구가 가진 저력과 그에 비하여 지역교회가 가진 선교적 무기력함이다. 전자는 천년 이상을 존재해 온 “기독교 사회”(Christendom)의 유산인데 그것이 동시에 지역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 유럽의 교회들은 기독교 사회의 유산인 교구제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 목회자는 어떤 새로운 목회적 도전이나 시도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선교와 봉사는 교회 밖의 전문기구를 통해서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지역단위의 교구에 배정된 교인들을 목회적으로 돌보는 일이 전부이다. 즉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운동성이 약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형태가 기독교 사회가 활발하게 존재하던 시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과 같이 세속화 현상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교회가 약해지는 상황이지만 지역교회 목회자는 이런 도전에 맞설만한 신학이나 목회적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안정된 제도권 교회에서 목회”가 유럽교회 목회자의 역할이다. 이런 현상이 이제 한국교회에도 도래하였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90년 대 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70-80년대는 세계교회가 놀랄만한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물론 성장의 모든 과정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은 항상 신앙 운동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신앙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운동성을 상실하고 있음에도 교회와 목회자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다양한 교회성장의 아류와 같은 프로그램만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교인들만을 상대로 목회하던 시대는 지났다. 선교적 교회 운동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제도와 교회 건물 안에서 목회하던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목회자부터 교회 밖, 즉 지역사회를 선교현장으로 인식하며 선교운동성을 회복하는 목회를 시도하는 것이 오늘의 목회의 과제이다.

선교적 리더십은 이제 전혀 기반이 없는 선교현장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은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일찍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일생을 헌신한 일가 김용기 장로의 개척정신을 선교적 목회 리더십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사례) 김용기 장로의 개척정신

“한 손에 성경을 또 다른 손에 호미를”, 이 말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흙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던 일가 김용기 장로의 삶을 잘 묘사한 표현이다. 일가 선생은 사상적인 면에서 한국 현대역사에 독특한 사상적 발자취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삶과 가정 전체가 한국 사회가 닮아가야 할 모델이 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다.[[44]](#footnote-44)

일가 선생은 여러 분야에서 매우 폭 넓은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분인데 이상오 교수는 일가 선생의 삶을 이렇게 묘사한다. “김용기 장로는 독특한 사상가였으며 계몽 실천자였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였으며 우리 농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농촌 전문가였으며 불굴의 개척 정신을 가지고 이상촌 건설을 위해 일생을 황무지 개척에 헌신한 실천적 개척자이자 개간자였습니다.”[[45]](#footnote-45)

일가 선생의 사상과 실천적 삶을 이끌어 간 원리는 다양하지만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맥락에서 그가 보여준 개척정신을 주목하고자 한다. 김용기 장로는 수 백 년 이상 대물림 해 온 농민들의 빈곤과 무지의 상태를 벗어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농부들의 의식 개혁과 그들이 정신적으로 깨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억지로 못살지 말고 억지로 잘사는 사람이 되자”라는 표현에서 일가 선생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김용기 장로는 남들이 일구어 놓은 안정된 기반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버려진 황무지만 일부러 찾아가 가족과 함께 개간하였으며 이것을 개척 정신이라고 불렀다.

김용기 장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민족의 빈곤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개척 정신이 우리 민족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일가 선생을 평생을 두고 황무지를 개척하여 옥토로 만들어 가는 개척자가 되게 한 것이다. 일가 선생은 개척 정신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정신을 개척해야 하는 정신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둘째 생활양식을 개척하고 개량해야 한다는 것, 셋째 황무지를 개척하여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개간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척 정신의 구현에 대한 김용기 장로의 의지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개인의 정신과 인성, 도덕적인 면에서 인격의 도야 뿐만 아니라 효와 예절, 식탁예절까지 삶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교육을 실행하였다. 김용기 장로와 그 가족이 실행하였던 황무지를 개척하는 정신이 이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종사하는 사람들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정신 개척”의 형태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남들이 가지 않은 개척자의 길,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앞서서 보며 살았던 선각자,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몸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였던 실천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의지하고 살아온 신앙인의 모습에서 오늘날 더 이상 안정된 기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선교의 운동성을 회복해야 하는 지역교회 목회자의 리더십의 모범을 발견하고 적용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필자가 연구한 선교적 교회의 모범적 사례에서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과거에 사회운동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운동권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교회의 제도 안에서 목회하지만 그 제도를 넘어서는 선교 운동성을 가진 목회자가 오늘의 상황에 요청되고 있다.[[46]](#footnote-46)

이러한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진 목회자는 기존의 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매우 창의적으로 접근하면서 다양한 선교적 목회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몇 개의 사례를 소개하면, 양평에 있는 국수교회는 교회 지역의 6개 리를 교회영역으로 선포하고 목회활동을 확대하는 “확장된 교회론”을 지향하였으며, 부천의 새롬 교회는 거시적 안목에서 시대와 상황의 필요성을, 미시적 안목에서 지역의 필요성을 매우 예민하게 감지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활동으로 선교적 목회를 수행한다.[[47]](#footnote-47) 안성에 소재한 율현교회는 농촌지역이 가진 절대인구의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로부터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어 마을 전체가 발전하고 교회도 부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사례들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안주하지 않고 교회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에 도전하고 개척하여 우리시대에 적합한 선교적 목회활동으로 접근하는 형태이다.[[48]](#footnote-48)

1. **소통과 동행(협력)의 리더십**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세 번째 특징으로 소통과 동행의 리더십을 제시하고자 한다.[[49]](#footnote-49) 선교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행위이다. 선교는 결코 일방적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세상을 이해하고 시대와 문화, 상황의 특징을 살피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과거의 성장시대에 목회자의 리더십의 표본은 “카리스마 리더십”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목회자가 가진 권위와 추진력을 의미했다. 대부분 성장하는 교회는 목회자의 비전과 그것을 실현하는 추진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런 목회적 능력을 뒷받침 해주는 요인은 목회자의 성별 된 권위였다. 목회자 자신도 성직자의 구별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도 역시 그러한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였다. 여기에서 목회자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주도형의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소통은 위에서 아래로 향한 일방적 형태로 진행되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과 은사가 있었지만 목회활동을 구성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목회자의 아이디어에서 나왔고 성도는 수동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위치에 머물렀다.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는 목회적 리더십에서는 더 이상 목회자의 권위에 의존한 수직적, 일방적인 소통의 관계를 지양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며 평등하게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추구한다.[[50]](#footnote-50) 선교적이란 용어 안에는 타자에 대한 열린 태도와 소통의 의미가 담겨있다.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의 선교는 세상을 향해 열린 태도와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소통하지 않으면 실천이 불가능하다. 그런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대화를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대화는 결코 일방적 통로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상호적 관계이다. 목회자가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교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의 노력을 해야 한다. 목회자의 권위에 의존하여 성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숨겨진 은사와 재능,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며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동행의 리더십을 수행한다.[[51]](#footnote-51)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바른 전달 뿐만 아니라 듣는 것이며 기다림도 필요하다. 또한 성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소통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선교적 목회를 위한 소통의 노력은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이루어져야 하지만 또한 교회 밖의 지역사회와, 주민들과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

서울 응암동에 소재한 성암 교회 조주희 목사는 지역사회 안에서 모범적인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전통적 교회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새로운 목회적 방향과 목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먼저 당회원들로부터 시작하여 전체 교우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다. 목회자가 추진하는 생각이 마치 당회원이나 교우들의 생각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교회가 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지역사회에 진행하지 않고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과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여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성암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바오밥 카페”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 선교적 교회의 대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성암교회는 주민들의 필요를 조사하여 주민들, 특히 젊은 주부들이 필요로 하는 만남의 공간을 위해 별도의 건물을 지어 카페와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교회의 목적으로 위해 카페를 휴관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교회가 특권을 갖지 않는다. 셋째 카페에서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않는다. 카페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주민을 향해 먼저 마음을 열고 소통하려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주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소유일지라도 특권의식을 갖지 않았다. 지역사회를 향해 열린 공간에서 성암교회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주민들과 만나고 대화할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회로 나와 성도가 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례) 부천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

경기도 부천에 자리한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는 교회 안에 성도는 물론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 기관이나 시민단체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지만 교회가 속한 부천의 약대동의 변화와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도전을 주는 모범적인 선교적 교회이다. 이원돈 목사의 선교적 목회 리더십에 관해서는 참으로 배울 내용이 많이 있지만 지면상 소통과 동행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주로 서민층이 거주하는 부천 약대동에서 29년 간 목회를 해온 이원돈 목사는 비기독교사회인 한국사회에서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가를 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새롬 교회는 1986년 부천 약대동 서민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작하였다. 새롬교회 담임 목사인 이원돈 목사는 우연히 지역 조사차 방문한 부천 약대동의 상황을 보고 청년 몇 명과 함께 빈민지역 목회로 출발하였다. 새롬교회는 처음부터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교회 목회를 지향하였다.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새롬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고, 창립 후 3년이 되는 1989년 한 집사의 헌신적인 참여로 마을 도서관 형태의 “약대글방”을 개원하였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가정이 해체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자 결속가정과 아동을 돌보는 가정지원센터를 2000 년에 설립하였고 이러한 지역사회 안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2001년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 하였다.

 새롬교회 활동은 한 마디로 지역교회와 지역사화가 함께 공존하면서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인적자원, 시민단체, 기관등과 협력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것을 생명망 목회, 즉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생태계는 ‘학습 생태계’, ‘복지 생태계’, ‘문화 생태계’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섬기며 봉사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홈 역할을 하고 있다.[[52]](#footnote-52)이원돈 목사의 목회관은 지역교회가 생명의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 다양한 차원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생명망을 조직하는 선교적 목회이며 이것을 지역 에큐메니즘 운동을 확산하여 지역사회로부터 한국사회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신앙운동을 꿈꾸고 있다.[[53]](#footnote-53)

**그림: 새롬교회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비전**



작지만 매우 큰 영향력을 실천하는 새롬교회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의 협동기관이나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사회에 필요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약대동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인문학 카페 협동조합 배움터가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실현하는 “담쟁이 마을”(전시 및 공연, 식당, 북카페, 휴게 공간 및 세미나실)이 문은 열었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꿈꾸는“아하체험마을”의 문화팀이 있다.

새롬교회는 이미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수요 인문학카페”와 여기에서 “인문학과 영상”, 인문학과 여행” 그리고 “인문학과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로 공부와 토론을 해 왔다. 또한 성서와 인문학을 연결하여 공부하면서 가족과 마을을 새롭게 발견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마을 협동조합 떡 카페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선교적 의미를 살펴보면, 새롬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지역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며 마을에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많은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새롬교회는 목회의 방향을 초기부터 교회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많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좋은 이웃으로 함께하며 교회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에 관하여 수시로 대화하며 소통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와 연대, 활발한 소통과 협력하면서 교회와 마을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계를 조성해왔다. 새롬교회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원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교회 밖에 있는 자원들-기관, 시민단체, 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들과 연대하여 작지만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54]](#footnote-54) 이원돈 목사는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부지런히 인문. 사회과학 서적들을 읽으면서 교회 밖에 있는 주민이나 시민단체 운동가들과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중언어’를 활용하며 자신의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역량을 강화한다. 그의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영향은 이제 지역사회를 넘어 한국과 세계를 향해 소통과 협력의 범위를 확장되고 있다. 필자는 새롬교회를 수 차례 방문하고 연구하면서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모델로서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를 잊고 부천의 새롬교회를 배우라고 소개한다.

1. **섬김과 세워주는 리더십**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네 번째 특징은 섬김과 세워주는 리더십이다.[[55]](#footnote-55) 기존의 교회중심적 목회 모델에서는 목회자 중심의 리더십을 갖게 되지만 선교적 목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동역자의 관계로 재설정한다. 특히 성장시대에는 목회자가 교회의 모든 활동을 주도하여 이끌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돕는 자의 인식과 위치에 머물렀다. 이런 일방적 관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목회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지역사회를 목회 현장으로 확대하는 선교적 목회에서는 더 이상 목회자 중심의 리더십이 적합하지 않다. 선교적 목회에서는 목회자 역할과 함께 성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도의 정체성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목회자가 교회를 소명의 현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성도는 세상을 소명의 현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성장시대나 교회중심적 목회 형태에서는 성도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회활동이나 소그룹 인도와 같은 목회활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으며 목회자를 돕는 역할을 해왔다. 모든 관심과 활동은 교회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교적 목회에서는 목회자의 정체성을 성도를 돕는 자로서 새롭게 인식한다. 교회가 건물이나 규모, 조직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온전히 세운다는 것은 성도를 세우는 일이다.[[56]](#footnote-56) 그러므로 성장시대에는 목회자가 얼마나 큰 규모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켰는가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량이나 리더십을 측정하는 기준이었다면, 선교적 목회 리더십에서는 성도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를 양육하고 세워주는 일에서 목회자의 기쁨과 보람을 찾아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중심에 서려고 하면 자연히 다른 사람은 주변에 머물게 된다. 그러면 공동체 구성원의 관계는 중심과 주변부로 설정되고, 중심에 있는 사람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수동적 위치에 머물게 된다. 이런 형태의 리더십이 목회자 중심적 리더십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는 선교적 목회 리더십에서는 리더의 역할의 인식과 관점의 전환을 요한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에 세우는 역할을 한다. 이런 리더십 형태에서는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역할은 다양하지만 모두가 주체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결코 약화되거나 소극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 참여가 요청된다. 목회자는 개인의 목회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한 목표를 향해 참여하는 성도들을 세심히 살피고 배려하며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함으로 성도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활동에 중심으로 세우게 된다.

이러한 리더십은 권위적이거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종이 되는 역할에서 실현할 수 있다. 예수님은 세속적 지도자와 제자들의 리더십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막10:43)로 시작되는 제자도는 세속적 리더십의 형태와 구분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선교적 목회 리더십은 세속적 권위가 아닌 사랑의 섬김으로 인정받는 권위를 통해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필자가 13년 이상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는 사례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목회자의 공통적 특징은 성도를 세워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나아가 지역주민을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협력관계에서 그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이었다. 그 목회자들에게서 권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성도들과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목회적 권위가 존중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론:**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1990년까지 거의 100년이 넘는 기간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초대교회 시기에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내면이 단단해졌으며, 경제적 빈곤과 정치,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하였다. 한국교회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 민족과 국가의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을 가졌으며, 교회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희망이기도 했다. 또한 현재 우리와 겪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다른 민족에게 전하려는 선교의 열정을 갖게 되었다. 130여 년의 짧은 한국교회를 보면 기적과 같은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역사를 한국교회는 온 몸으로 경험하였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세계선교를 이루신다고 확신한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안정된 제도적 교회를 넘어 선교의 운동을 목회에 적용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테오 순더마이어, 선교신학의 유형과 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53-154. [↑](#footnote-ref-1)
2. 김명용, 온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5), 91. [↑](#footnote-ref-2)
3.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 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 세계교회협의회 주요문서 및 해설집, 세계교회협의회 신학을 말한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71-142. [↑](#footnote-ref-3)
4. 선교적 교회론은 필자의 “선교적 교회론과 협동조합”의 제1장의 내용에 의존하였다. 온생명생협발기인회 신학자문위원회 편, 생명선교와 협동조합운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5), 138-143. [↑](#footnote-ref-4)
5. 에배소서에 나타난 교회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장흥길, “신약성격의 관점에서 바라본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 장흥길, 임성빈 책임편집, 건강한 교회 세우기. 교회되게, 교회답게 (서울: 한지터, 2012), 45-59. [↑](#footnote-ref-5)
6. 이 본문의 탁월한 주석은 다음을 참고하라. Petr Pokorny’, Der Brief des Paulus an die Epheser. Theologis-cher Hand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10/II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92), 87-95. [↑](#footnote-ref-6)
7. 얍복 강가에서 야곱과의 씨름이나 요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 무엇보다 시편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나 호소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footnote-ref-7)
8. 김명실, “하나님의 이야기와 인간의 이야기가 함께 엮이는 기독교 예배와 설교,”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편/장신근 책임편집,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 (서울: 킹덤북스, 2015), 113. [↑](#footnote-ref-8)
9. 예배의 신학적 이해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5), 제2부: 예배의 신학적 이해, 85-178. [↑](#footnote-ref-9)
10. 김운용, 위의 책, 105. [↑](#footnote-ref-10)
11.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5), 158. [↑](#footnote-ref-11)
12. 안스 요아힘 반 데어 벤트 지음, 연규홍 옮김, WCC의 에큐메니칼 신학 (서울: 동연, 2013), 362. [↑](#footnote-ref-12)
13. 위의 책, 383. [↑](#footnote-ref-13)
14.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5), 121-122. [↑](#footnote-ref-14)
15. 김명실, “하나님의 이야기와 인간의 이야기가 함께 엮이는 기독교 예배와 설교,”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편/장신근 책임편집,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 (서울: 킹덤북스, 2015), 116. [↑](#footnote-ref-15)
16.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5), 125. [↑](#footnote-ref-16)
17. 위의 책, 125. [↑](#footnote-ref-17)
18. 위의 책, 177. [↑](#footnote-ref-18)
19. 존 쾨니그 저, 오성춘 역, 신약성경의 기도 (서울: 하늘 향, 2014), 149. [↑](#footnote-ref-19)
20. 호세 발라도, 떼제 이야기 (왜관: 분도출판사, 1983), 123. [↑](#footnote-ref-20)
21. 참고하라. 호세 발라도, 떼제 이야기 (왜관: 분도출판사, 1983). [↑](#footnote-ref-21)
22. H.G. 언더우드 저, 이광린 역, 한국개신교수용사 (서울: 일조각, 1995), 87, 116. [↑](#footnote-ref-22)
23. 사무엘 마펫, 이용원 번역, “복음화 사역에서 현지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 선교와 신학 제25집 (2010), 323-337. [↑](#footnote-ref-23)
24. 르네 빠딜라 지음, 이문장 옮김,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서울: 대장간, 2012), 54. [↑](#footnote-ref-24)
25. 한국일,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 선교,”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편/장신근 책임편집,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 (서울: 킹덤북스, 2015), 202-203. [↑](#footnote-ref-25)
26. 필자가 방문한 어떤 교회는 건물을 아름답게 리모델링 한 후에 지역주민들이 서로 친교할 수 있는 공간을 교회주변에 만들면 좋겠다고 말하자, 그렇지 않아도 교회건물이 완성된 후에 지역주민들이 교회로 몰려올 까봐 장로님들이 걱정한다는 목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런 경우 지역주민들을 전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인색함을 발견할 수 있다. [↑](#footnote-ref-26)
27. 박화경,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지역교회의 친교에 대한 연구”,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편/장신근 책임편집,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서울: 킹덤북스, 2015), 290-291 [↑](#footnote-ref-27)
28. 한국일,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30집(2012), 79-85 [↑](#footnote-ref-28)
29.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본 지역교회 선교의 의미”, 교회와 신학 제80집(2016), 427-428 [↑](#footnote-ref-29)
30. J. C. 호켄다이크, 이계준 역, 흩어지는 교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footnote-ref-30)
31. 김상복, 목회자의 리더십(서울:엠마오, 1997), ,77-78 [↑](#footnote-ref-31)
32. Eddie Gibbs, Leadership Nest, 이민호 옮김, 넥스트 리더십(서울: 쿰란출판사, 2010), 35, 46-48 [↑](#footnote-ref-32)
33. 홍영기, 한국 초대형 교회와 카리스마 리더십(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footnote-ref-33)
34. 필자의 논문은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30집(2012)76-115,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의 원리-한국교회 현장에서 배우는 선교적 원리”, 한국선교신학회 엮음,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333-374; 한국선교신학회에서 출판한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한국선교신학회 엮음,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footnote-ref-34)
35. 전석재는 선교적 리더십의 제목으로 논문을 작성하였는데 내용은 기존의 제도 중심의 교회와 모이는 교회 중심의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는 리더십을 기술하고 있어 필자가 주장하는 선교적 목회 리더십과 유사하다. 전석재,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 한국선교신학회 엮음,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285-306 [↑](#footnote-ref-35)
36. 에디 깁스는 교회의 본질이 선교임을 회복하고,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분리되어 온 교회(학)와 선교(학)를 재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에디 깁스, 넥스트 리더십, 58 [↑](#footnote-ref-36)
37. 유해근 목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를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던 과정을 예로 들면서 현재 부모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어린이 중에 앞으로 몽골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다문화사역을 하고 있다. [↑](#footnote-ref-37)
38. 예를 들면 프루드만은 그의 선교적 리더십을 주로 선교사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어 저술하고 있다. James E. Plueddemann, Leading Across Cultures. Effective Ministry and Missions in the Global Church, 변진석, 김동호 옮김, 범세계적 교회와 선교적 리더십(서울:한국해외선교회,2013) [↑](#footnote-ref-38)
39. 대럴구더가 편집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에서 “선교적 리더십” 항목에서는 북미 상황에서 지역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목회적 리더십을 선교적으로 이해하고 조명하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D. Guder, Missional Church, 정승현, 선교적 교회(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3), 제7장 선교적 리더십(272-319) [↑](#footnote-ref-39)
40. 선교적 목회 리더십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목회자의 선교적 목회를 위한 신학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른 글을 참고하라.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 [↑](#footnote-ref-40)
41. 에디 깁스, 넥스트 리더십,190 [↑](#footnote-ref-41)
42. 필자가 연구한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 목회자들에게서 이러한 공통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footnote-ref-42)
43. 월터 라이트는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리더십은 일종의 관계이다. 즉 어떤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의 사고와 행동, 믿음, 가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그 관계가 리더십인 것이다.”넥스트 리더십에서 재인용,42 [↑](#footnote-ref-43)
44. 한국일, “김용기. 민족과 사회를 일깨운 실천적 사상가”, 참스승. 인물로 보는 한국 기독교교육사항(서울: 새물결풀러스, 2014), 147-162 에서 요약함 [↑](#footnote-ref-44)
45. 이상오, “김용기 선생님과 가나안농군학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꿈꾸며』, 34 [↑](#footnote-ref-45)
46. 영국 축구 팀 맨유의 감독을 지낸 퍼거슨은“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리더십과 관리의 차이”라고 말했다. 알렉스 퍼거슨. 마이클 모리츠, 리딩(Leading), 중앙일보. 2016. 2. 27일 18면 [↑](#footnote-ref-46)
47. 새롬교회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는 이원돈 목사의 글을 참고하라. [↑](#footnote-ref-47)
48. 에디 깁스는 이러한 도전적이며 창의적 목회의 변화를 “벼룩과 코끼리”로 비유하면서 그러한 변화는 소규모와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한다. 넥스트 리더십, 73-74 [↑](#footnote-ref-48)
49. 헨리 블랙가바. 토머스 블랙가비 지음, 홍종락 옮김, 동반자 리더십(서울: 요단, 2010) [↑](#footnote-ref-49)
50. 에디 깁스는 이머징 교회를 추구하는 리더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머징 교회들이 추구하는 리더십은 사람들을 향한 힘(영향력을 행사하고 일을 성사시키는 리더의 역량을 통해 발휘되는 힘)도,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힘(사람들을 조직화하여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정하는 리더의 역량을 통해 발현되는 힘)도 아니다. 이머징 교회에서의 리더십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힘이다.” 에디 깁스, 넥스트 리더십, 245 [↑](#footnote-ref-50)
51. 영국이 전설적 감독인 맨유의퍼거슨 감독의 리더십을 연구한 마이클 모리츠는 그의 리더십의 특징을 강요가 아니라 동기부여와 동행이며, 선수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5%의 능력들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다고 기술하였다. 중앙일보, 2016년 2월 27일. 18면 [↑](#footnote-ref-51)
52. 세 차원의 생태계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제16회 소망포럼, 83-90 [↑](#footnote-ref-52)
53. 이원돈 목사는 그의 생명망 목회의 특징을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자세히 정리한다. 이원돈, 지역연합 정신(local ecumenism)에 기초한 생명망(Web of life) 목회, (갈릴리 신학대학원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2014), 95 [↑](#footnote-ref-53)
54. 이원돈, “도시 지역사회 선교와 목회 사례연구: 부천 새롬교회 중심”, 제16회 소망포럼. 지역교회의 선교와 목회의 구체화 및 미래방향(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96-98 [↑](#footnote-ref-54)
55. 장흥길. 임성빈 책임편집, 섬김의 목회 리더십(서울: 한지터, 2011) [↑](#footnote-ref-55)
56. 평신도 신학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폴 스티븐스, 홍병룡 옮김,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서울: IVP, 2001) [↑](#footnote-ref-56)